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이 안 구*

1. 서론

현대국어에서 ‘있다’와 ‘없다’는 매우 특이한 활용양상을 보인다. 평서형(‘있다’/‘없다’)과 감탄형(‘있구나’/‘없구나’)의 경우에는 형용사와 일치하지만 의문형(‘있느냐’/‘없느냐’)과 관형사형(‘있는’/‘없는’)에서는 동사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있다’와 ‘없다’의 품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있다’와 ‘없다’의 품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존재사’라는 품사 범주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이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것보다도 일치하지 않으며, ‘존재’라는 의미 역시 동작이나 상태와는 구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있다’와 ‘없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처리하기도 한다. ‘있다’와 ‘없다’가 나타내는 ‘존재’라는 의미는 ‘상태’에 가까우며 의문형과 관형사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있다’와 ‘없다’를 모두 형용사로 다루거나 ‘존재사’라는 단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있다’와 ‘없다’가 반의어를 이룬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들의 품사를 단일하게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있다’는 ‘없다’와는 달리 ‘있는다’, ‘있어라’, ‘있자’ 등의 활용형이 성립한다. 이는 ‘있다’가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¹⁾

* 박사과정

1) ‘있다’와 ‘없다’의 품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논의가 분분하다. 우선 ‘존재사’라는 품

이제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있다’가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형용사인 ‘없다’가 ‘없느냐’, ‘없는데’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있다’의 두 가지 성격, 곧 형용사로서의 ‘있다’와 동사로서의 ‘있다’가 어떻게 관련되며 또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현대국어에서 ‘있다’와 ‘없다’가 보이는 활용상의 특이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있다’의 두 가지 성격

‘있다’가 동사적 성격과 형용사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때, 동사로서의 ‘있다’와 형용사로서의 ‘있다’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동사적 쓰임과 형용사적 쓰임을 함께 갖고 있는 ‘크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가. 아이가 무럭무럭 크다 / *작다.
나. 무럭무럭 크라(크거라).

사를 설정할 것을 주장한 논의로는 이완웅(1929), 박승빈(1931), 이희승(1956), 서정수(1991, 1996) 등이 있고 ‘있다’와 ‘없다’를 형용사로 보는 입장으로는 최현배(1937/1965), 유현경(1996), 임홍빈(2001) 등을 들 수 있다. 정인승(1959), 허웅(1983)에서는 ‘있다’는 동사로, ‘없다’는 형용사로 보았고 송철의(2001), 최기용(1998), 배주채(2000)에서는 형용사로서의 ‘있다’ 이외에 동사로서의 ‘있다’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의 ‘있다’가 동사로서 기능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전적 처리에 있어서는 ‘있다’와 ‘없다’에 대하여 ‘존재사’라는 품사를 설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없다’는 형용사로 다루고 있으나 ‘있다’와 ‘계시다’의 경우는 사전에 따라 동사로 처리하기도 하고 형용사로 처리하기도 한다.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주채(2000)을 참고할 수 있다.

- 다. 무럭무럭 큰 아이.
- 라. 아이가 한동안 잘 크더니 요즘은 그렇지 않다.
- 마.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크다.

동사로서의 ‘크다’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크다’가 동사로 쓰일 경우 그 반의어로 ‘작다’가 성립할 수 없으며 현재 평서형으로 ‘크다’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실현된다. 또 ‘커라(크거라)’와 같은 명령형이 가능하고, ‘-느-’가 결합하지 않은 관형사형으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식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부사나 ‘한동안’과 같은 시간 부사와 결합할 수 있고 조사 ‘에서’가 실현된 장소 부사어와 어울려 쓰일 수 있다.

이제 ‘있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없다’가 반의어로 성립하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가. 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다 / 없다.
- 나. 그는 아들이 있다 / 없다.
- 다. 김선생은 고향에 있다 /^(*)없다.
- 라. 그는 서울 중학교에 있다 /^(*)없다.
- 마. 그는 서울 중학교 국어 선생으로 있다 /^(*)없다.
- 바.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있다 /^(*)없다.
- 사. 소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다 /^(*)없다.
- 아. 학생들이 조용히 있다 /^(*)없다.
-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회의가 있다 /^(*)없다.

(2가~나)에서는 ‘없다’가 쓰여도 문장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있다’는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대상적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2다~라)와 같은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선 ‘없다’가 부정어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있다’는 ‘대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머무르다’, ‘지내다’, ‘근무하다’와 같이 유정물의 존재가 시간적 폭을 갖고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없다’가 그 반의어로 쓰이지 못하며 그 경우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마~아)의 ‘있다’는 유정물과 관련하여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양상적 존

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없다’가 그 부정어로 성립하지 못한다. ‘국어 선생으로’, ‘잠옷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조용히’라는 표현은 모두 ‘어떻게’라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떻게’라는 양상을 문제삼는 것은 동사의 특성이다. (2라)와 (2마)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어 ‘국어 선생으로’의 실현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2자)에서 ‘있다’는 ‘발생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도 ‘없다’가 부정어로 쓰이기 어렵다. 이는 ‘회의’라는 명사가 일종의 사건성 명사라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²⁾

다음으로 동사로서의 ‘있다’는 평서형에서 ‘있다’라는 활용형이 실현될 수 있다.

- (3) 가. *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다.
 나. *그는 아들이 있다.
 다. 김선생은 (방학 때면) 고향에 있다.
 라. 그는 (고등학교에 있으려 하지 않고) 중학교에만 있다.
 마. ?그는 서울 중학교 국어 선생으로 있다.
 바. 아이가 (집에 오면) 잠옷 차림으로 있다.
 사. 소년은 (따뜻한 실내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다.
 아.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조용히 있다.
 자. *아침 9시부터 회의가 있다.

(3가~나)에서는 ‘있다’라는 활용형이 성립하지 않지만 (3다~아)에서는 ‘있다’라는 활용형이 가능하다. 단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실현된 (3마)에서는 ‘있다’의 쓰임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며 (3자)와 같이 사건성 명사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있다’라는 활용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있다’의 활용형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경우의 ‘있다’를 동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있다’가 동사로 쓰인다고 해서 반드시 ‘있다’의 활용형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크다’의 경우 평

2) ‘오늘 아침에는 회의가 없었다’와 같은 문장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러나 여기서 ‘회의’는 ‘사건성’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단지 ‘없다’의 ‘존재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서형에서 형용사는 ‘크다’로 실현되고 동사는 ‘큰다’로 실현되어 명확히 구분되지만 ‘있다’는 평서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동사로서의 ‘있다’는 명령형이나 청유형, 의도형이 성립한다.

- (4) 가. *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나. *그는 아들이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다. 고향에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라. 중학교에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마. ?국어 선생으로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바. 잠옷 차림으로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아. 조용히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자. *9시부터 회의가 있어라 / 있자 / 있으려 한다.

(4가~나)에서는 명령형이나 청유형, 의도형이 성립할 수 없으나 (4다~아)에서는 가능하다. 단 ‘자격’을 나타내는 (4마)는 그 성립이 자연스럽게 못하며 사건성 명사가 쓰인 (4자)는 명령형, 청유형, 의도형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있다’는 다음의 (5)와 같이 ‘있은’이라는 활용형을 취할 수 있다.

- (5) 가. ?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
 나. ?그는 아들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
 다. 동생은 고향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로 돌아왔다.
 라. 김선생은 서울 중학교에 있은 지 3년만에 학교를 옮겼다.
 마. 그는 서울 중학교 국어 선생으로 있은 지 3년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바.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있은 지 오래지 않아 잠들어 버렸다.
 사.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은 지 삼십 분만에 손이 따듯해졌다.
 아. 학생들은 조용히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자. 대의원 회의가 있은 후 김사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가~나)에서는 활용형 ‘있은’의 성립이 자연스럽게 못하지만³⁾ 그에 비

해 ‘있다’가 동사로 쓰인 (5다~자)에서는 ‘있음’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은 조사 ‘에서’가 결합한 장소 부사어와 ‘잠시, 종종, 한동안’ 등의 시간 부사어와의 어울림을 살펴본 것이다.

- (6) 가. *학교 앞에서 (잠시) 정거장이 있다.
 나. *집에서 그는 (잠시) 아들이 있다.
 다. 동생은 고향에서 (잠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라. 김선생은 서울 중학교에서 (한동안) 있다가 얼마 후 경기 중학교로 옮기었다.
 마. 그는 서울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국어 선생으로 있었다.
 바. 아이는 집에서 (종종) 잠옷 차림으로 있다.
 사. 소년은 문밖에서 (한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다.
 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잠시) 조용히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다시 떠들기 시작한다.
 자. 회의실에서 9시부터 (한 시간동안) 회의가 있었다.

(6가~나)의 경우 ‘에서’가 결합한 장소 부사어나 시간 부사어가 모두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6다~자)의 ‘있다’는 ‘에서’ 부사어나 ‘잠시’, ‘종종’, ‘한동안’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어울려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 ‘있다’는 형용사로서의 성격과 동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형용사로서의 ‘있다’와 동사로서의 ‘있다’는 대부분의 활용형을 공유하며 의미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동사의 경우 평서형에서 ‘-느’의 결합이 수의적이다. 곧 형용사로서의 ‘있다’와 동사로서의 ‘있다’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있다’가 특이한 활용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 실제 발화에서는 ‘있음’이 성립하여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5다~자)와 같은 경우에 유추되어 ‘있음’이라는 활용형 자체가 ‘있-’의 과거형으로 인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세종 말뭉치 자료 중에는 ‘그간의 경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에 없던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다’와 같이 ‘없음’이라는 활용형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발화 실수가 아니라면 이는 ‘있음’이라는 활용형에 유추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있다’의 통시적 활용양상

‘있다’가 동사로서의 성격과 형용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때, 평서형(‘있다’)과 감탄형(‘있구나’)에서는 형용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의문형(‘있느냐’)과 관형사형(‘있는’)에서는 동사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각 활용형별로 그 통시적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

3.1. 평서형

중세국어에서 ‘있다’의 평서형은 ‘있다’, ‘잇노라’, ‘이쇼라’, ‘잇느니라’, ‘이시니라’로 실현된다.

(7) 가. 술와 사발 다 있다 네 머그라 <변노 상 : 57a>

나. 故國에 平時에 사던 짜홀 스랑호는 배 이쇼라 <두초 6 : 8a>

나. 고래와 거북을 타 가고져 호는 빠디 잇노라 <두초 8 : 58b>

다. 처엄 道場에 안즈시니 부테라 혼 일후미 거시고 轉法호야 涅槃을 니르시니 法이라 혼 일후미 잇고 橋陳如를 濟渡호샤 羅漢이 드외니 僧이라 혼 일후미 이시니라 <석상 13 : 59b>

다. 迷호안 理를 일허 제 어기오 아란 어기오물 일허 理에 卽호나 迷와 悟왜 그 理 호가질씨 漸次人 일후미 잇느니라 <선종 상 : 91a>

(7나)는 ‘고향(長安)에 평소에 살던 곳을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이고 (7나’)은 ‘고래와 거북을 타고 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 정도로 해석되는데, (7나)와 (7나’)을 비교해 볼 때 ‘-느-’의 결합여부로 동사와 형용사를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곧 ‘-느-’가 결합한 것은 동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형용사라거나 혹은 ‘-느-’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동사의 부정법

4) ‘있다’의 활용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있다’가 쌍형 어간을 갖는 용언이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곧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어간이 ‘잇-’으로 실현되고, 매개 모음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이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에 의한 과거라는 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잇노라’와 ‘이슈라’는 의미 차이 없이 수의적으로 교체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은 (7다)의 ‘이시니라’와 (7다’)의 ‘잇느니라’를 비교해 볼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다. (7다)와 (7다’)은 모두 ‘이름이 있다’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문 (8)은 근대국어 시기의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 (8) 가. 우리 집의 유위 잇느냐 유위 잇다 <노언 하 : 3a>
 나. 내 비록 만혹이나 적이 이에 어듬이 이쇼라 <자성 내 : 18b>
 나. 원랑의 바르미 잇노라 <자성 내 : 16b>
 다. 卍 | 衰호야 道 | 微호니 邪호 說과 暴호 行이 作호미 이셔 卍이 그
 ㅅ을 弑호 者 | 이시며 子 | 그 父를 弑호 者 | 잇시니라 <맹울 3 :
 69b~70a>
 다. 五百年에 반드시 王者 | 興호리 잇거시든 그 즘음에 반드시 卍名호
 者 | 잇느니라 <맹울 2 : 79a>

(8나)와 (8나’), 그리고 (8다)와 (8다’)을 비교해 보면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동일 문헌에서 의미 차이 없이 함께 쓰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단 근대국어 시기에는 중세국어에 비하여 ‘-느-’가 결합한 활용형의 세력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느-’가 결합하지 않은 ‘이쇼라’와 ‘이시니라’는 몇몇 문헌에만 드물게 남아 있을 뿐이다.⁵⁾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의미 차이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잇-/이시-’의 활용 패러다임이 ‘-느-’ 결합형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중세국어와 비교해 볼 때 ‘-느-’가 결합하지 않은 활용형의 세력이 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잇-/이시-’의 활용 패러다임이 점차 ‘-느-’가 결합한 쪽으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의 활용형이 ‘-느-’ 결합형으로 굳어진다는 것은 ‘유추적 평준화(analogical leveling)’의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유추적 평준화’란 용언의

5) ‘이쇼라’는 《어제자성편언해》와 《두시언해 중간본》에 나타나고 ‘이시니라’는 《맹자율곡선생언해》와 《십구사략》에 보인다.

패러다임에 있어서 ‘하나의 형태 : 하나의 의미’라는 도상성에 기반하여 유추의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다.⁶⁾ ‘있다’의 경우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공존하고 있다가 유추적 평준화 과정을 겪으면서 ‘-느-’가 결합한 쪽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표지가 복잡한 표지로’ 대체되고, ‘영형태보다는 형태를 가진 것’, ‘명시적인 표지가 선호된다’고 하는 유추의 일반적인 경향성과도 일치한다.⁷⁾

‘있다’의 평서형 중 ‘잇느니라’는 ‘이시니라’에 비하여 세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니라’라는 평서형 어미 자체가 그다지 쓰이지 않게 되고 의고적 문체로만 남아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잇노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3.2. 감탄형

다음의 예문 (9)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의 ‘있다’의 감탄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 (9) 가. 내 財物 庫藏이 이제 맞들 띠 있도다 <법화 2 : 198b>
 가. 義를 아디 몬홀 사르몬 부텨 모미 實로 이 곁흔 差別이 거시도다 ㅎ
 며 實로 이 곁흔 일홈과 數왜 잇놋다 ㅎ느니라 <금삼 5 : 12b>
 나. 예서 데 가매 당시론 칠파릿 갈히 잇고나 <번도 상 : 60a>
 다. 내 설흔 량 은이 이세라 <번박 62b>

중세국어 시기에는 감탄형으로 ‘잇도다’의 활용형이 주로 나타나고 드물지만 ‘-느-’가 결합한 ‘잇놋다’의 활용형도 실현된다. 여기에서도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 사이의 의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16세기부터는 현대국어의 ‘있구나’에 소급되는 ‘잇고나’라는 활용형이

6) 유추적 평준화에 대해서 Hock(1986: 167~189), McMahon(1994: 73~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국어에서의 논의로는 배주채(1991)을 들 수 있다.

7) Kuryłowicz와 Mańczak은 몇 가지 유추의 경향성을 파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ńczak(1980), Hock(1986: 210~237), McMahon(1994: 76~8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타나며 ‘이세라’라는 활용형도 보인다.

- (10) 가. 네사롬이 또흔 廟에 告訢는 禮 있도다 <가례 4 : 13a>
 나. 본더 口眼喎斜病이 있고나 <전비 1 : 28b>
 다. 주인 형아 또 흔 말이 이세라 <노연 상 : 50a>

근대국어 시기에는 ‘있도다’라는 활용형만 보이고 ‘잇돗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⁸⁾ 이는 감동법 어미 ‘-돗-’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도다’형으로 실현되는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있고나’, ‘이세라’의 활용형도 실현된다.

3.3. 의문형

현대국어에서 ‘있다’의 의문형은 ‘있느냐’, ‘있는가’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실현된다. 이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에도 동일하다.

- (11) 가. 오직 著 업스며 柃 업소문 도르혀 果報 | 있느냐 업스너 <금삼 3 : 63b>
 나. 公道 아롬덧 ㅁ슴미 잇는가 <변소 10 : 1b>
 (12) 가. 더 藥舖에 招牌 잇느냐 업느냐 <박신 3 : 12a>
 나. 어미 아들을 잔을 준대 아들이 바다 마시고져 후다가 술에 독이 잇는 가 의심하야 짜히 업티니 짜히 쏘아 니러나는디라 <종덕 하 : 65a>

(11)은 중세국어 시기의 의문형을 제시한 것이고 (12)는 근대국어 시기의 예를 든 것이다. ‘있다’의 의문형으로 ‘-느-’ 결합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한 공백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중세국어 시기에 ‘-느-’ 결합형으로 굳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8) 《두시언해 중간본》에 단 2번 나타날 뿐이다. 이들은 초간본의 예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3.4. 관형사형

현대국어에서 ‘있다’의 관형사형은 ‘있는’이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느-’가 결합하지 않은 활용형도 실현된다.

- (13) 가. 모든 머느리 쏘 서르 친히 너기고 스랑호야 이신 거시며 업슨 거슬
 헨가지로 흐더라 <변소 9 : 93b>
 가. 교디 던장홀 저귀 고애 잇는 거시 ㄱ둑고 나모미 처섬 올 적두곤 더
 으게 흐며 <변소 10 : 14b~15a>

(13가)의 ‘잇는 것이며 없는 것’과 (13가)의 ‘창고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잇는’과 ‘이신’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단 ‘이신’은 주로 ‘故, 것, 時, 時節, 적, 제, 後, 然後, 則’ 등의 한정된 명사 앞에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⁹⁾

- (14) 가. 쏘 하교호야 곶으샤디 내 동궁에 이신 ㅅ애 계능이로써 흥역비의게
 곤흠을 보미 만흔지라 <명의 2 : 70a-b>
 가. 이 ㅅ애의 내 마춤 와니[와니는 동궁 팀실이라]의 잇는 고로 이러트시
 니르니라 <명의 권수 상 : 3b>

근대국어에서 ‘이신’은 중세국어 시기에 비하여 그 실현되는 환경이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적, 제, 後, 然後, 則’ 앞에서 실현되는데 19세기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있다’의 관형사형 역시 ‘-느-’가 결합한 활용형의 세력이 확대되어 굳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앞서 ‘있다’의 의문형으로 ‘-느-’가 결합한 활용형만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문형이 기원적으로 ‘동명사형+의문조사(가/고)’의 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신’이라는 동명사형의 실현 환경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신+가’와 같은 구성은 애초부터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3.5. 연결어미 ‘-(으)니’와 통합하는 경우

‘있다’의 활용형 중에서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평서형(‘잇느니라’/‘이시니라’, ‘잇노라’/‘이쇼라’)과 감탄형(‘잇도다’/‘잇놏다’), 관형사형(‘잇는’/‘이신’) 이외에 연결어미 ‘-(으)니’와 통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5) 가. 摩訶迦梅延은 眷屬 五百 比丘 더브러 蓮花를 지스니 金臺 근더니
 比丘ㅣ 그 우회 이시니 몸 아래서 브리 나아 곳 스미에 홀로디 짜해
 처디디 아니코 우회 金蓋比丘를 두퍼 잇더니 <월석 7 : 33a-b>
 가. 이런 種種엿 羊車 鹿車 牛車ㅣ 이제 門 밧고 잇느니 어루 노녀 노
 롯흐리니 <월석 12 : 27a>

(15가)는 ‘比丘가 그 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15가’)은 ‘牛車가 문 밖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이시니’와 ‘잇느니’ 사이에는 별다른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음의 (16)은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인 《노걸대연해》와 이에 대응되는 중세국어의 《번역노걸대》를 대비하여 제시한 것이다.

- (16) 가. 더 동녘 겨되 혼 간 빈 방이 이시니 네 보라 가라 <노언 상 : 60b>
 가’. 더 동녘 겨되 혼 간 빈 방 잇느니 네 보라 가라 <번노 상 : 67b>

(16가)의 ‘이시니’는 중세국어의 대응하는 (16가’)과 비교해 볼 때 ‘잇느니 > 이시니’로 교체된 것임을 살필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도 ‘잇느니’의 활용형이 실현되기는 하지만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현대국어 어에서는 ‘-느-’가 결합하지 않은 활용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느니 > -(으)니’의 전반적인 교체가 일어났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10) 일례로 ‘가느니 > 가니’의 교체를 살펴볼 수 있다.

가. 제 시방 글월 가지고 高麗人물 모라 북경을 향하야 흥정흐라 가느니 <노언 상 : 46b>

4. ‘없다’의 통시적 활용양상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의 ‘없다’는 ‘없어지다’나 ‘죽다’와 같은 동사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¹¹⁾ 그러나 ‘없다’가 동사적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만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4.1. 평서형

중세국어 시기에 ‘없다’의 평서형으로는 ‘업다’, ‘업스니라’, ‘업느니라’가 실현된다.

- (17) 가. 이ᄃᄃ티 이ᄃᄃ티 諸善男子야 如來 | 安樂ᄃᄃ야 病 저그며 惱 저그며
衆生ᄃᄃ도ᄃ 수이 어루 化度ᄃᄃ따라 ᄃᄃᄃ 업다 <법화 5 : 93a>
나. 前念이 ᄃᄃ을 니르와다ᄃ 後念이 ᄃᄃ 그치며 前念이 着 잇거든 後念
이 ᄃᄃ 여ᄃᄃᄃ 實로 가며 오미 업스니라 <금강 52a>
나. 善男子는 ᄃᄃᄃ ᄃᄃᄃᄃᄃᄃ 또 이 正定 ᄃᄃᄃᄃᄃᄃ 能히 一切功德을 일
위 간 고대 ᄃᄃᄃᄃᄃᄃ 업느니라 <금강 10a>

(17나)은 ‘가림이 없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업느니라’는 ‘없어지다’와 같은 동사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17나)와 (17나’)은 모두 ‘-호미 없다’

가. 계 시방 글월이 잇고 朝鮮ᄃᄃᄃᄃᄃ을 모라 北京을 향ᄃᄃ여 賣ᄃᄃᄃᄃ라 가니 <중노 상 : 47b>

중세국어의 ‘-(으)니’는 종결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어서 종결성이 강한 것은 주로 전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종결성이 약한 것은 발견이나 인과성, 계기성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으)니’는 주로 인과성, 계기성을 나타내고 전체의 기능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종결성이 강한 ‘-(으)니’는 연결어미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느-’, ‘-더-’, ‘-거-’, ‘-리-’ 등의 시상 관련 요소가 결합할 수 있었는데 ‘-느니 > -(으)니’의 교체는 이러한 ‘-(으)니’의 성격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없다’가 ‘없어지다’나 ‘죽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들기알 물ᄃᄃ ᄃᄃᄃᄃᄃᄃ 또 ᄃᄃᄃᄃᄃᄃ ᄃᄃᄃᄃ 後에 허ᄃᄃᄃᄃᄃᄃ 업느니라 <구방 하 : 11b>
나. 長者 | 病ᄃᄃᄃᄃᄃᄃ 업ᄃᄃᄃᄃ <월석 23 : 72b>

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여기에서 ‘업스니라’와 ‘업느니라’는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18)은 근대국어 시기의 평서형이다.

(18) 가. 이 칼이 또 쓸 디 업다 左右 | 아 보라 므슴 武藝 잇는고 <전비 8 : 19b>

나. 子 | 父 後 되여시면 出母와 嫁母를 爲하야 服이 업스니라 繼母 | 내타이면 服이 업스니라 <가례 6 : 18a>

나. 물잇 喪애 父 | 이시면 父 | 主 | 되니 곧 父 | 이시매 子 | 主喪 하는 禮 업느니라 <가례 7 : 2b>

(18나)와 (18나')을 살펴보면 ‘업스니라’와 ‘업느니라’가 의미 차이 없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업스니라’가 ‘업느니라’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세를 갖고 나타났으나 근대국어에서는 ‘업느니라’의 세력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때 ‘없다’는 ‘있다’의 경우와 유사하게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공존하다가 ‘-느-’가 결합한 쪽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존재’라는 측면에서 반대항을 이루는 ‘있다’의 활용형에 유추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²⁾ ‘있다’의 활용형에서 ‘-느-’ 결합형의 세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반의어인 ‘없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추과정은 ‘유추적 확장(analogical extension)’, ‘4항 유추(four-part analogy)’로 설명된다.¹³⁾ ‘유추적 확장’이란 비례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잇- : 없- = 잇느- : x’라는 4항 비례식으로부터 ‘x= 업느-’라는 활용형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세국어에서 ‘없다’가 동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있다’와 ‘없다’는 모두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함께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된 설명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느-’ 결합형이

12) 배주채(1991), 이현희(1994-), 송철의(2001)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3) 유추적 확장(Analogical extension) 혹은 4항 비례(four-part analogy)에 대해서는 Hock(1986), McMahon(199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당히 자리를 잡은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하여 ‘없다’는 ‘-느-’ 결합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양상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2. 감탄형

다음은 ‘없다’의 감탄형을 제시한 것이다.

- (19) 가. 건건 혀는 솔웃 셨 짜토 업더니 올혀는 솔웃도 업도다 흐시니 <남명 상 : 8b>
 나. 내 方等經論을 드리 各各 師承 잇고 後에 維摩經에 부텨 心宗을 아로디 證明호리 업세라 <육조 중 : 99a>
- (20) 가. 하늘히 길고 바다히 너르니 혼이 ㅁ이 업도다 <동신 열 1 : 92b>
 나. 庫에 둔 쌀을 다 제 먹으며 만코 櫃 속에 너흔 衣服도 제쳐 버린 거시 만호니 피오되 내 더를 다스릴 法이 업세라 <박신 3 : 2a>

(19)는 중세국어, (20)는 근대국어의 경우이다. ‘없다’의 감탄형으로는 ‘업도다’, ‘업세라’의 활용형이 실현되고 ‘-느-’가 결합한 활용형은 보이지 않는다.

4.3. 의문형

현대국어에서 ‘없다’의 의문형은 ‘없느냐’, ‘없는가’와 같이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실현된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 (21) 가. 아디 묻호리로다 天下엿 사르미 至極호 性이 이리호니 잇느녀 업스녀 <두초 22 : 2a>
 나. 네 이 됴에 콩 뵈 다 잇는가 업슨가 콩 뵈 다 잇다 <번노 상 : 17b>

중세국어에서 ‘없다’의 의문형은 ‘-느-’가 결합하지 않은 활용형만 실현된

다. 이는 일반적인 형용사의 활용양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는 ‘-느-’가 결합한 활용형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 (22) 가. 너희 高麗人 짜해 우물이 업스냐 엇디오 <노연 상 32b>
 가'. 너희 朝鮮人 짜히 우물이 잇느냐 업느냐 엇지 물깃기틀 아지 못흐
 느뇨 <노중 상 32a>
 가''. 朝鮮 짜히 우물이 업느냐 엇지 물깃기 아지 못흐느뇨 <몽노 2 :
 23a>
 나. 여귀 스나희 잇는가 업는가 <전비 7 : 11a>

(22가)의 ‘업스냐’는 17세기의 자료이고 (22가')과 (22가'')의 ‘업느냐’는 모두 18세기말의 자료이다. 여기에서 ‘업느냐’가 이전 시기의 ‘업스냐’를 교체해 나간 것을 살필 수 있다. (22나)의 ‘업는가’라는 활용형도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있다’의 활용형에 유추된 것으로 ‘-느-’의 세력 확대가 ‘없다’의 의문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업스냐 > 업느냐’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가 대략 18세기경이라고 할 때 비슷한 시기에 ‘잇-/이시-’의 어간이 ‘잇-’으로 통일되었다는 점¹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잇-/이시-’의 어간이 ‘잇-’으로 고정되면서 ‘-느-’가 결합하지 않는 ‘이시-’의 활용형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없다’의 활용형이 ‘-느-’ 결합형으로 교체된 것은 이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4.4. 관형사형

‘없다’가 관형사형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업슨’의 활용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논’의 활용형도 실현된다.

- (23) 가. 이 菩薩이 꽂애 드로미 本來 꽂애 住흔 病 업슨 전치라 <원각 하

14) 이현희(1994: 60~61)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잇-/이시-/시-’의 어간이 ‘잇-’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이 보임을 언급하였다. 송철의(2001)에서도 어간 ‘잇-’의 단일화 시기를 18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한 바 있다.

2-2 : 8b>

가. 니르샤터 오직 大悲方便이라 흐샤몬 … 오직 大悲 거시면 반드기
能히 너비 化흐시고 오직 方便이 거시면 반드기 根에 맛당호물 마
초아 그 허물 업논 전치라 <원각 하1-1 : 59b>

위의 예에서 ‘업슨’이 실현된 (23가)는 ‘병 없는 까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느-’가 결합한 ‘업논’이 실현된 (23가)은 ‘허물 없는 까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다음의 예문 (24)는 근대국어 시기의 관형사형을 보인 것이다.

(24) 가. 진실노 명의 이만 업흐미 업슨 줄을 알거시르더 <천의 진천의쇼감전 : 4b>

가. 이피 이 무리 악역의 맛음이 니르디 아니흔 배 업논 줄을 아라습더
니 <천의 1 : 47a>

(24가)의 ‘업슨’과 (24가)의 ‘업논’ 역시 동일한 환경에서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업슨’이 ‘업논’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점차 ‘업논’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업논’이라는 활용형이 실현되는 것은 이러한 통시적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느(느)-’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5. 연결어미 ‘-(으)니’와 통합하는 경우

‘없다’ 역시 연결어미 ‘-(으)니’와 통합하는 경우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함께 실현된다.

(25) 가. 논호디 문흔 전츠로 虛空이 잇고 體 업스니 보매 셋글씨오 보미 잇
고 아로미 업스니 <능엄 4 : 84b>

가. 化흐는 理 머쁘디 아니흐야 뭇뭇 뭇유미 그스기 울마 톱 길며 머리

터럭 나며 氣 슬며 양지 삶지여 날와 밤과에 서르 끌어늘 값간도 아
로미 업느니 <능엄 10 : 82a-b>

(25가)의 ‘업스니’와 (25가’)의 ‘업느니’는 모두 ‘없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느-’가 결합하지 않은 ‘업스니’와 ‘-느-’가 결합한 ‘업느니’가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 (26)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6) 가. 더 디새 물 비야 저기 힘이 업스니 그저 불와 짝릴가 저페라 <박언
중 : 40b>

가’. 아모 히 月 日에 아모 빗젯 물을 드라나 일히서되 나히 현이오 아
모란 7만흔 보람이 잇고 인은 업느니 報信 ㅎ느니는 석 냥이오 거두
어 어드니는 옛 냥을 ㅎ여 탈로 ㅎ여 가져가게 ㅎ고 물을 어더든 더
를 一半 잡술 주고 물러 가져오리라 <박언 하 : 55b-56a>

근대국어 시기에도 ‘-느-’가 결합하지 않은 활용형 ‘업스니’가 여전히 ‘업느니’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인다. ‘-느-’ 결합형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있다’의 경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용언의 문제라기보다는 ‘-(으)니’의 성격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국어에서 ‘있다’와 ‘없다’가 특징적인 활용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선 ‘있다’가 형용사와 동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있다’와 ‘없다’의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있다’와 ‘없다’는 ‘-느-’가 결합한 활용형과 그렇지 않은 활용형이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유추적 평준화와 유추적 확대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느-’ 결합형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현대국어의 의문형(‘있느냐/없느냐’)과 관형사형(‘있는/ 없는’)은 이러한 통시적 변화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있다’와 ‘없다’의 활용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단지 이들 용언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것인가 하는 품사 분류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동사와 형용사의 중간적 양상을 보이는 다른 경우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Ⅲ』(남기심 엮음), 태학사.
- 고영근(1981/1998),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 김동식(1988), 「선어말 어미 ‘-느-’에 대하여」, 『언어』 13-1, 171-202.
- 김정아(1997), 「시상 형태소 ‘-엇-’, ‘-느-’의 이형태 목록의 변화에 대하여」, 『인문과학논문집 (대전대)』 11-1, 39-49.
- 박부자(2001), 「용언어간 ‘없-’의 활용 양상의 통시적 변화」,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역대한국문법대계』Ⅰ 48, 탑출판사.
- 배주채(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주시경학보』 7, 137~139.
- _____(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223~245.
- 서정수(1991), 「풀이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_____(1996), 『국어문법』(수정 증보판), 한양대학교출판부.
- 서태룡(1991), 「상태동사와 ‘-느-’의 통합관계」,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총』.
- 송철의(2001), 「용언 ‘있다’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조선어연구회(170회) 발표문.
- 신선경(1998),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59/1978), 『十五世紀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운평어문연구소 편(1996), 『금성관 국어대사전』(제2판), 금성출판사.
- 유현경(1998), 『국어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기갑(1985), 「현실법 표지 ‘-느-’의 변천」, 『역사언어학』, 전예원.
- 이승욱(1986ㄱ), 「존재동사 ‘ㅁ시-’의 변의」, 『국어학신연구』 I, 탑출판사.
- _____(1986ㄴ), 「중세국어 시상법의 형태범주」, 『동아연구』 10, 1~41.
- 이완용(1929), 「중등교과 조선어문전」, 『역대한국문법대계』Ⅰ 40, 탑출판사.
- 이현희(1982ㄱ), 「국어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 _____(1982ㄴ),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143~163.

- 이현희(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57~77.
- _____(1994ㄱ),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_____(1994ㄴ),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15, 52~81.
- 이희승(1956), 「존재사 '있다'에 대하여: 그 형태요소의 발전에 대한 고찰」, 『논문집』(인문과학편, 서울대) 3집.
- 임흥빈(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정언학(1995), 「'있(다), 없(다)'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기용(1998), 「'있-'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력성」, 『국어학』 32, 107~134.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1965), 「우리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47, 탑출판사.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崖田文隆(1997), 「있는 初探」, 『日本語と朝鮮語(下卷 研究論文編)』, 國立國語研究所(日本).
- Anttila, R. (1972)/ 박기덕·남성우 (역) (1995), 『역사비교언어학개론(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민음사.
- Hock, H. 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 Lyons, J. (1977), *Semantics*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ńczak, W.(1980), Laws of analogy, in J. Fisiak (ed.), *Historical Morphology*, Mouton.
- McMahon, M. S.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